

신입생으로서 1년 동안의 학과생활

16학번 송민혁

안녕하십니까? 저는 철학과 16학번 송민혁 입니다. 저는 1년 동안 집행부에서 기획부차장으로 있으며 많은 추억들을 쌓아 왔습니다. 저희의 처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모든 게 낯선 상황에서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고, 가까워 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

엠티에서 선배님들과의 많은 추억을 나누고 저희 동기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으며, 진양체전에서 저희 과가 비록 높은 점수를 받진 못했지만 과 전체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응원을 하며 더욱 친해질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또 미네르바의 향연을 준비하면서 음악에 관심이 있는 저로써는 필드를 준비하며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, 춤과 연극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. 2학기가 끝나서 정말 아쉽고 이런저런 추억이 많이 있다는 것과 모든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, 또 이런 모든 행사를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. 축제 등 행사를 준비하면서 공부에 소홀해질 수도 있었지만, 항상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도 계셔서 정말 공부할 때에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항상 교수님들이 특강을 열어주시고 또한 교수님들도 개인 상담으로 학생들의 진로나 학과생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부족한 저희를 잘 이끌어주셔서 더욱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한해가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지만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:)